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

‘일’이라는 주제를 신선한 시선으로 바라본 책

_독일 EMYS 논픽션 부문 수상평

★★★

이 책의 질문들을 따라 자신만의 답을 찾다 보면,
일과 직업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_정다빈 (김포 향산초등학교 교사)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 : 일과 직업에 대한 15가지 질문

미케 사이어 글·그림 | 김영진 옮김 | 40쪽 | 13,500원 | ISBN 978-89-255-7878-1 (77300) | 초등 전학년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2 도덕 2.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

5-1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3-2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4-2 국어 3. 바르고 공손하게

전학년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

4-2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일과 직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교사인 저는 매해 새로운 학생들을 만 나는데,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가도록 이끌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 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 삶과 경험이 한창 자라나는 학 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되었을 때, '교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직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이외에 제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블로그에 수업 일기를 남기는 일, 집을 청소하고 요리하는 일 등이지요. 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자 돈을 받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경험 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아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때로 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학교에서 진로 교육은 나를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며, 여러 직업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 어집니다. 어린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길 원하지요. 하지만 어른들은 압니다. 어떤 일은 보람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어떤 일은 꼭 해 야 하지만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쩌면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도 같은 고 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책은 재미있는 그림과 간결한 설명과 함께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일과 직업 에 대한 15가지 질문을 던지며, 학생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정말 즐거운 것인지, 일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지,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등 아이들이 책 속 질문을 따라 자신만의 답을 찾아 보면, 어느새 일과 직업에 대한 나만의 기준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완전히 깨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 주는 그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도, 장애인도 모두 일을 하고 있고, 여자가 하는 일과 남자가 하는 일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차별과 편견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요. 이뿐만 아니라 이 책은 어린이 노동을 통해 어린이의 인권 문제에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들이 어린이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 나가는 어린 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한발짝 다가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했거나 직업은 선택했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책이 우리 어린이들의 일과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길러 주는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다빈(김포 향산초등학교 교사)

'반짝이는 우리, 빛나는 우리반'에서 매해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 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 빛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친구를 존중할 줄 알 때,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구하자환경교육연구회' 회장 재임
- 2021년 환경보건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수상
- 2021년 환경교육 우수 교수학습 프로그램 공모전 장려상(한국교육개발원장상) 수상



미션 1 :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은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일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자만 할 수 있고, 남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없지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지 추측해 써 보세요. 직업 이름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이 추측한 직업과 책에서 소개한 직업이 같을지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미션 2 : 일을 하면 즐거울까요?



사람들은 일을 하며 어떤 즐거움을 느낄까요?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해요. 때로는 일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① 그림 속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을 느끼며 일하고 있을지 예시를 참고하여 써 봅시다.



<예시>
고객이 나의 서비스를
만족해 할 때
(즐거움을 느껴요.)



② 때로는 일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24쪽에서 일이 즐겁지 않은 상황을 찾아 써 봅시다.

•
•
•
•
•
•

③ 여러분은 일을 하며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싶나요? 더 이상 일이 즐겁지 않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미션 3 : 내가 하게 될 일에 대한 힌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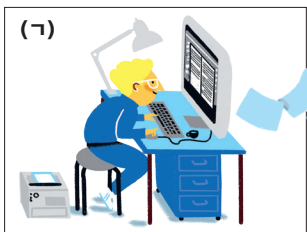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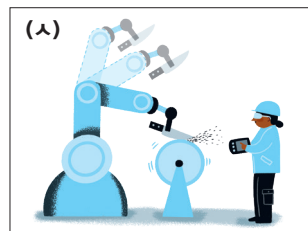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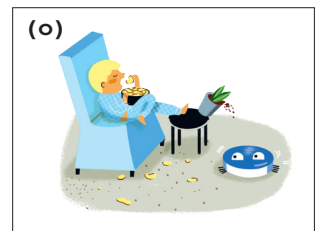


여러분은 모험 같은 일과 사무실에서 하는 일 중 어떤 일이 더 기대되나요?
 또 옛날과 오늘날의 직업이 많이 다를까요?
 책을 읽으면서 아래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러분이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힌트를 얻을지도 몰라요!

① 모험 같은 일에는 ○표, 사무실에서 하는 일에는 △표를 해 봅시다. 어떤 일에 마음이 더 두근거리나요?

 <p>하수도 시설을 관리해요.</p>	 <p>계획을 세워요.</p>	 <p>까다로운 사람하고 통화해요.</p>	 <p>우주를 비행해요.</p>
 <p>중요한 회의를 해요.</p>	 <p>북극 지역을 연구해요.</p>	 <p>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동식물을 촬영해요.</p>	 <p>I'll send you an e-mail with the details!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해요.</p>

② 일의 종류와 형태는 계속 변해 왔어요. 옛날에 중요했던 직업들 가운데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직업도 많지요.
 일은 사라지기도 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바뀌면서 새로 생겨나기도 해요. 그림에서 옛날과 오늘날 일의 모습을 찾아
 기호를 쓰고,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겨날지 상상해 보아요!

<p>(ㄱ)</p> 	<p>(ㄴ)</p> 	<p>(ㄷ)</p> 	<p>(ㄹ)</p> 
<p>(ㅁ)</p> 	<p>(ㅂ)</p> 	<p>(ㅅ)</p> 	<p>(ㅇ)</p> 

• 옛날 : (, , ,) • 오늘날 : (, , ,)

• 미래에 생겨날 일의 모습 :
 (, , ,)

미션 4 : 어린이 노동을 통해 어린이 인권 알아보기



일에는 누구나 다 하는 일과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있어요.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요. 그 돈으로 옷과 음식을 사고 취미 활동도 하지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해서는 안 돼요. 모든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곳곳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하는 어린이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모든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차별 금지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의 인종, 종교, 언어, 경제적 상황, 장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28조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어린이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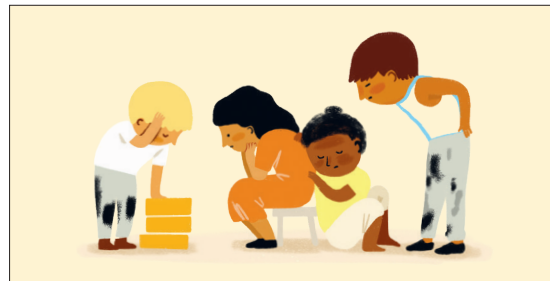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8조 전쟁 속 어린이

우리는 전쟁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나라나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기도 해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커서도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워요.



한국에서도 1960~70년대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들이 봉제 공장에 일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매일 16시간씩 먼지 날리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지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빈혈과 폐병 등으로 죽거나 쓰러지기도 했어요.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lines and illustrations of children playing.

미션 5 : 직업 인터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내 주변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인터뷰해 봅시다. 가족부터 친척, 동네 어른까지 누구를 인터뷰해도 좋아요. 책에 소개된 질문을 떠올리며 궁금했던 점을 여쭙습니다. 단, 공손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로 인터뷰하고, 약속은 미리 잡아야 해요!



<사진 또는 그림>	이름		직업	
	하는 일			
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어떻게 일을 배우게 되셨나요?				
②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즐거우신가요? 혹은 즐겁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일이 즐겁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③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이 아주 중요할까요?				
④ 자유 질문 :				
<인터뷰를 마친 소감>				

최종 미션 :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

책을 읽으며 일과 직업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보았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에 따라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한답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예요.
 여러분은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의 미래를 꿈꾸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미래 직업	
하는 일	
나의 미래 모습 그리기	

<나의 미래 꿈꾸기>

- 1 괄호 안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 2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운동, 요리, 피아노 같은 활동을 나열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것',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는 것', '다친 동물을 돌봐 주는 것' 등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 3 앞서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 직업을 써 봅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써도 좋아요.
- 4 직업을 정했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하는 일' 칸에 써 봅니다.
- 5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 봅니다.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설명서

6가지 미션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면서 일과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를 앞에 두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초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책이 많은데요. 하지만 진로를 결정할 때 직업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무엇인지, 일은 왜 해야 하는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15가지 질문과 간결한 그림을 통해 일의 의미와 가치, 일의 변천사, 다양한 직업의 모습 등을 알려 줍니다.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일과 직업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세상의 다양한 직업이 궁금할 때
- 일과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
-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될 때
- 일과 직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고 싶을 때
-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나의 꿈이 무엇인지 찾고 싶을 때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문신을 한 사람도 말이지요. 또 여자만 할 수 있는 일,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지도 않았습니. 모든 사람은 차별과 편견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첫 번째 미션은 그림만 보고 직업을 추측해 보는 활동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직업을 추측해 보고,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사람들의 진짜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자연스럽게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 일을 하면 즐거울까요?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고객이 내 서비스에 만족했을 때,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마음이 잘 통하는 동료로 만났을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른들도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두 번째 미션에서는 일을 하며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끔 일이 즐겁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해 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미션 3 : 내가 하게 될 일에 대한 힌트 찾기

보통 '일하러 간다'고 하면 회사에 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회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저마다 맡은 역할을 치열하게 수행하지요. 반대로 현장(예를 들어 우주나 극지 등)에 나가 모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 번째 미션에서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일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요했던 직업이 오늘날에는 사라지기도 하고, 오늘날 중요한 직업이 미래에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 미래에 새롭게 나타날 직업을 상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4 : 어린이 노동을 통해 어린이 인권 알아보기

이 책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들이 하는 일'도 놓치지 않고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션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부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노동 문제를 통해 노동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을 떠올리며 어린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심화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 직업 인터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책에 소개된 질문들을 따라가며 일의 가치와 일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직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일하고 있는 어른들을 인터뷰하면서 책 속 질문에 대한 더 생생한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 미션은 내 주변의 어른을 인터뷰하는 활동입니다.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일이 정말로 즐거운지, 일을 선택할 때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등 어른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점을 미리 생각해 질문해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최종 미션 :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알려 주기 보다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일을 선택하면 좋을지 스스로 깨닫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앞선 5개의 미션을 통해 일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세웠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겠지요?

여섯 번째 미션은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미래를 그려 보는 활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먼저 떠올린 후 나의 미래 직업을 고민해 봅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해낼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꿈꿀 수 있길 기대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어른들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어른들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까?》
비르지니 모르간 글·그림 | 장미란 옮김

책을 읽고 나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과학자들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까?》
제인 월서 글 | 매기 리 그림 | 손성화 옮김

책을 읽고 나서

건축가, 영화 감독,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 등 예술가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MoMA 꼬마 예술가 그림책> 시리즈

사만사 프리드만 외 글 | 클라스 베르플랑케 외 그림 | 장미란 외 옮김